

추석 가정 예배

소명교회
Somyung Church

찬송 79장(통 40)

다같이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2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하도다

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앞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

다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과 학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기쁨을 기념하는 추석 명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러지는 가정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빌립보서 4:4-7

다같이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기쁨을 회복합시다!

다같이

찬송 588장(통 307)

다같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웃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쁨을 회복합시다!

빌립보서 4장 4-7절

추석
가정
예배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듣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기쁨’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도, 가정도, 개인의 우울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지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는 말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참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온 가족들에게 기뻐할 일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1.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4절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큰 슬픔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가진 기쁨을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가진 기쁨을 사람들이 알리라고 말합니다. 5절의 기록된 관용의 뜻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고통을 준 대상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용서와 용납을 경험했습니다. 더 많이 용서 받았기 때문에 작은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용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3.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